

기고

우리 집 지키는 첫 번째 안전장치, 주택용 소방시설

최근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는 여전히 큰 인명·재산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는 다소 감소했지만, 주거시설 화재는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며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거공간은 생활과 밀접해 작은 부주의가 큰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더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화재는 '초기 1-2분'이 생사를 나누는 만큼, 경보와 초기진압이 실제 피해를 좌우합니다. 그러나 주택 화재 피해 조사 결과 상당수 가정에서 연기감지기나 소화기 등 기본적인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화재를 늦게 발견해 대피가 지연되거나, 작은 불씨를 소화기 한 대로 충분히 진압할 수 있었음에도 대응하지 못해 큰 화재로 이어진 사례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결코 복잡하거나 비싼 장비가 아닙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가 발생하면 즉시 경보음을 울려 가족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며, ABC형 분말소화기 한 대만 있어도 초기 불길은 충분히 진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초 소방시설의 설치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명피해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넘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줍니다.

전남은 고령 인구와 농촌형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화재 대응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일수록 화재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스스로 초기 행동을 할 수 있는 장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전기난방기구 사용 증가, 노후 배선, 건조한 날씨 등 화재 요인이 늘어나는 겨울철에는 그 위험이 더 커집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월 1회 정도 작동 여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기구 주변 가연물 정리, 문열발식 콘센트 사용 자제 등 생활 속 작은 실천도 큰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강진소방서는 앞으로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화재예방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집에 감지기와 소화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작은 준비가 큰 생명을 살립니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상운

"칭찬합시다."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수 없다. 칭찬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비타민이기 때문이다. 자신감을 심어 주고 인간관계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온화하게 해주는 물론 그 넓이를 한없이 넓혀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해 가는 데 있어서 기폭제의 역할까지 하는 것이 바로 칭찬이다. 그래서 칭찬은 좋은 것이다. 생각해 보라. 누구든지 칭찬을 들어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는가. 칭찬은 사람들이 기를 쓰고 모으려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시간이 많이 소비되지 않는다. 즉, 아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광폭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칭찬이란 말이다.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우리 모두 칭찬을 생활화하면 어떨까

써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 하기 때문일까. 승승계임보다는 자신만이 모든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일까. 참으로 모를 일이다. 그래서 칭찬보다는 오히려 험담을 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인간 세상인지 모르겠다. 험담이 인간 세상의 독소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모로코 속담에도 험담은 최소한 세 사람을 죽인다고 했다.

그 첫 번째는 물론 험담을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험담을 듣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험담을 옮기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맞는 말이다. 이처럼 험담은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험담은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는 곧 우리 주변을 청량감보다는 혼탁함이 감도는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도시민들보다는 오히려 정치인들을 비롯한 소위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자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심하다. 그들은 이 순간에도 공존보다는 유아독존만을 향해 끊임 없이 달려가고 있다.

직실적으로는 물론 칭찬을 가장한 속임수가 들어있는 거짓칭찬, 사탕발림 칭찬, 실속 없는 칭찬, 의미 없는 칭찬 그리고 금방 뒤돌아서면서 욕을 해대는 칭찬도 마다하지 않는다. 권력이 있을 때는

갖은 아부를 다해가며 칭찬을 하다가도 그 힘이 사라지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정치모리배 및 장사치들.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훌륭한 프로젝트를 고안해 낸 사람도 어둠의 뒷골목으로 몰아가 버리는 족속들. 성황리에 치러지는 남의 잔치를 애써 폄훼해야만 가슴이 편안해지는 쓰레기들. 극한적인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넘나들지 못하도록 아류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인간힘을 써대는 일부 몰지각한 물질주의자들. 이런 토실물 같은 부류들이 우리 사회에 업존하고 있기에 칭찬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참으로 애제다. 통제다.

오물투성이 사회에서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사회로 변모해 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칭찬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칭찬은 구체적이고 간결해야 한다. 사소한 것부터 칭찬해 주도록 하자. 특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생시부터 인간관계를 폭넓게 해야 하는데 그 한 가운데에 바로 칭찬이 뿌리를 틀고 있다. 비판마저도 칭찬처럼 하라고 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는가.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예방,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스마트폰, 전동킥보드, 노트북 등 현대인의 생활에 필수적인 기기 대부분은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한다. 배터리는 고효율과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관리 소홀이나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충전 중 발열, 외부 충격, 불량 제품 사용은 배터리 폭발 및 화재로 직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충·방전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며, 일정 온도를 넘어설 경우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배터리 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폭발과 화재로 이어진다. 최근 발생한 사례들을 보면 비정품 충전기 사용, 차량 내 장시간 방치, 충전 중 외출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은 명확하다. ▲정품 충전기 사용 ▲배터리 과열 시 즉시 충전 중단 ▲낙하·압력에 의한 손상 주의 ▲고온 환경에서 보관 금지 ▲취침·외출 시 충전 지양 ▲폐기 시 지정된 수거함 이용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화재는 한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된다. 리튬이온배터리 역시 올바른 사용법을 준수하면 안전한 도구이지만, 방심하면 위험이 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안전을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박은원

오늘의 운세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음력 10월 7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daily forecasts. Includes signs like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phone numbers, email,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Life Line' (대한민국의 생명선) celebrating 50 years of high-speed roads. Features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and logos for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nd 50th anniversary.